

조계사 '천도재 상업화' 파문

총무국장 영공 스님 기자회견서 논란 일축

“천도재를 면죄부에 빚대 미신으로 매도하는 것은 신도들의 불심과 효심에 대한 모독이다.”

조계사 총무국장 영공 스님은 1월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와 같이 조계사 천도재에 대한 상업화 논란을 일축하고 “천도재는 현대인들의 종합 신행시스템으로 수행과 포교의 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도재를 단단계 판매 상품 정도로 표현하는 모 언론의 기사는 보편성을 잃은 기사”라며 “불교를 비방하고 발전을 저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영공 스님의 입장은 부주지 토진 스님과 기획국장 성진 스님을 제외한 조계사 대중 스님의 입장으로 조계사의 ‘천도재 상업화’에 대한 비판이 세민 스님 입가와 관련한 일부 음해 세력에 의한 행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계사 신도회의 사찰공개 운영 등 최근의 급작스런 운영 시스템 변화가 세민 스님의 입가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영공 스님은 “세민 스님의 입가는 총무원장 스님의 고유권한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조계사 신도회는 조계사 비판의 여론이 확산되자 1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도회는 “교계 언론을 이용해 조계사와 주지 스님을 음해하고 근거 없는 추측보도와 비방을 일삼아

승가를 분열 시키는 음해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계사의 ‘343일 천도재’는 세민 스님이 주지로 취임한 2008년부터 부채 청산과 조계사 개산 100주년 성역화 불사를 위해 시작됐다. 이로써 73억 중 42억의 부채해결, 8차 10층 석탑불사, 사적비 건립불사, 삼오모텔 매입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반면 무리한 진행에 따른 부작용과 기복 불교를 양성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현재 2차 343일 천도재 진행에 앞서 조계사는 천도재 등장 안내 전화를 신도들에게 하고 공개 영구위탁 등에 대한 노골적인 모연행위로 ‘본래 의도를 벗어나 신도를 돈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조계사는 신도들의 의사를 반영해 3차 343일 천도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계사 대중스님들은 “조계사 성역불사를 위해 세민 스님이 주지 소임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세민 스님을 지지하는 신도와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현대인들의 참된 수행 활동을 찾는 파사현정의 길이 될지, 정당한 자기 주장이 될지 불자들의 시선이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로 모아지고 있다.

이상연 기자

“주인공으로 메이크업”

서울 경찰청 등 신행단체 신년법회 잇따라 봉행

벌써 1월의 끝자락이다. 희망을 가지고 거창하게 세운 새해 계획을인데 벌써 흐지부지된 일들이 수도무수하다. ‘작심삼일’이 되기 십상이지만, 새해 소망을 도반들과 함께 서원하는 신년법회가 잇따라 봉행되고 있다.



1월 21일 서울 경찰청 법당에서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1월 21일 점심시간, 서울 경찰청(청장 강희락) 법당에서는 공양소리 대신 목탁과 반야심경 독송소리가 울려 퍼졌다. 매주 목요일 정기 법회날이지만 신년법회답게 법당에는 80여 명의 불자들이 가득 찼다.

신년특별초청법문을 한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이날 ‘주인공의 삶으로 make-up하는 한해’라는 유쾌한 주제로 법문을 했다. 계성 스님은 “세상을 확실히 알면 크게 좋아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다. 생로병사로 귀결되는 삶을 평탄하게만 보내려고 하지말라”며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성취감을 느끼는 것 또한 인생의 큰 재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넉넉한 웃음과 친절, 진실함으로 참된 ‘나’를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희망을 안겨줬다.

서울 서초사암연합회(회장 법안, 대성사 주지)는 20일 신년초찬법회를 봉행했다. 법안 스님은 인사말

에서 “서초구청 공무원들과 화합해 지역발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에 박성중 구청장은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협조를 통한 명품 도시, 인류행복도시 창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찬 법회에는 관내 32개 사찰 주지 스님 및 신도회장, 박성중 서초구청장, 서울시불자회 이동우 회장(서초구청과장), 서초불교협의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법조인 재가불자 단체인 서초반야회(회장 박흥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저녁 7시부터 서울 대성사(주지 법안)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수계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참된 수행생활을 위한 시작으로 수계법회가 가장 좋다는 반야회 회원들의 요구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법회에서는 박흥우 판사, 여상훈 부장판사(서울고법), 박희승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경구 부장

판사(서울행정법원), 이준범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20명이 수계를 받았다. 박흥우 판사는 올 한해 “‘수행과 나눔’이라는 가치 아래 공부모임, 급식봉사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바라밀의 날’ ‘1인 1명 포교하기’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총사암연합회는 성남시공무원불자회와 함께 15일 성남시 대강당에서 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례법회를 봉행했다. 임선교 성남시공무원불자연합회 고문은 “시와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다지는 계기이자 공무원불자회의 활성화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분별과 경계를 넘어 함께 나가자’는 주제로 1월 27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평화공연장에서 재가불자 신년하례회를 봉행한다. 신년하례회에서는 중앙신도회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보고, 신임 임원 임명장 수여, 감사패 증정식도 진행된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종 스님과 각 사찰 및 지역 재가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1000자 뉴스

조계종 호법부 ‘보이스 피싱 각별 주의’ 공문

사찰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덕륜)는 1월 19일 “사찰을 상대로 한 변형 보이스 피싱 사건 발생에 따른 일선 사찰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호법부는 공문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손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금전적 손해 외 사찰의 대외적인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의심전화가 올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 호법부로 연락을 취하고 주변 사찰과도 연락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02/2011-1836)

조계종 분담금소위 본말사 분담금 조정 본격화

94년 종단 개혁 이후 일괄 편성돼 온 조계종 본·말사 분담금 조정이 본격화됐다. 중앙종회 ‘분담금 등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성월)는 1월 18일 분담금의 효율에 대해 논의하고 “각 사찰의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차등화 된 ‘분담금 효율’에 대해 예산 실사 등을 통해 재지정하는 방안과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이를 위해 교구본사주지회의와 교구본사 재장공장 회의 등에서 의견 수렴 후 2011년 예산에 반영키로 결의했다. 다음 회의에서 특별분담금사찰 추가 지정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수덕사 선원 대중공양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 재가연대는 1월 30일 ‘이웃 벗들과 함께하는 기부순례-회원가족의 해피타임-선원대중공양’이란 제목으로 재가연대 회원을 비롯한 불자들이 함께 수덕사 선원에서 대중공양을 진행한다. 출발은 오전 8시 양재역. (02/2278-3671)

불교생활의례문화원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가야금, 대금, 서예 등의 문화강좌를 마련했다. 가야금 입문강좌는 3월 10일~6월 2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진행하며 12명 접수받는다. 대금 산조배우기 강좌는 3월 10일~8월 25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며 30명 선착순 접수 받는다. 각 수강료는 30만원. 서예 초급 강좌는 3월 8일~8월 16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민화·불화 초급반은 3월 4일~8월 12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 각각 마련됐다. 모든 강좌는 견지동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1층에서 진행된다. (02/720-1079)

태고종 사정원 효성·호명·재흥·천운 스님 인사

태고종은 1월 18일 공석중인 중앙사정원 사정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중앙사정원 사정위원에는 효성 호명 재흥 천운 스님이, 사무처장에는 지상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전통문화전승관 2층 회의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종단이 개혁과 변화의 시기에 있는 만큼 사정위원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은정·공플란트치과 협력병원 조인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과 공플란트치과(대표원장 최우환)는 1월 18일 ‘협력병원 조인식’을 개최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성월 스님과 최우환 원장.

조인식에 참석한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성월 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공플란트 치과와 함께 더 많은 이웃을 도울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최우환 대표원장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德無所住而生其心) 부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부와 대학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

적”이라고 말했다. 공플란트치과는 매일 은정불교 문화진흥원에서 추천한 무의탁 독거어르신 1명,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및 청소년 2~3명에게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한다. (02/722-2870) 이상연 기자

美 워싱턴서 불음 전파 나서

고려대 불자교우회 첫 해외지부 창립

고려대학교 불자교우회(회장 김복주, 이하 고불회는 해외 첫 지부를 창립하고 명상 수행을 통해 한국불교 포교와 성장 동력이 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미국 한인사회에서도 불교세가 가장 약한 워싱턴 DC에 생긴 고불회 워싱턴 지부는 명상에 관심이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포교법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1월 10일 메릴랜드 한국사에서 봉행된 창립법회는 창립회원 12명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인수(수입학 72학번) 창립준비위원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황인수 초대회장은 “참선 위주의 수행을 통해 동문간의 짐목을 다지고, 가족과 이웃에게 모범을 보일 것”이라며 “한국불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모임으로 만들 것”을 서원했다. 황인수 초대회장은 메릴랜드 보현사 신도회장을 역임하고 2006년 워싱턴 수생식물원에서 개최된 ‘연꽃과 아세아 문화축제’ 준

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포교에 앞장서 왔다.

창립법회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워싱턴을 방문한 최평규 박사(교우회 상임이사)는 “창립멤버가 워싱턴 DC에서 불교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불교와 명상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자세로 포교하라”고 당부하고 불서 100권을 기증했다.

고불회는 세계 고대 문명들 불자회 창립을 통해 범세계 불자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있다. 앞으로 워싱턴 DC 이어 LA,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해외지부 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학생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내선 80점 이상)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석 사 과 정	3년	10명 (평점3.5이상)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 경 대 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계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0년 2월 28일

5. 문의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삼화불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중국상담 안내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東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86-25-84028773 · 핸드폰 : 86-13-585195431
- 팩 스 : 86-25-84028478~9

조기유학생 모집

초6년-고3재학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중고등) www.njsdfx.co.kr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 광 대 한의대학

대 전 대 한의대학

삼화불교 대학

2009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 ▲윤치영(해성고) ▲박설영(경성대) ▲김경표(휘문고)
- ▲정화용(용문고) ▲신재훈(대중금속고) ▲최영화(화지고)
- ▲장원석(경신고) ▲김동성(중일고) ▲한승미(우송대)
- ▲안성환(김천고) ▲김도경(진선고) ▲도현은(영남대)
- ▲백지훈(동신대) ▲윤두경(일동고) ▲임재근(부산과학대)
- ▲조용성(사직고)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 ▲강성우(호남대) ▲이충현(우석대) ▲최종건(UCLA)
- ▲황성환(대건고) ▲박선규(반포고) ▲서연호(한국항공대)
- ▲오진영(천안중앙고) ▲김현진(법철)동국대 ▲김범태(화홍고)
- ▲김지효(경동대) ▲정선호(동명정보대) ▲김범진(동아대)
- ▲최예린(서인천고) ▲김태우(부산대) ▲남우열(주성대)

- 석사과정 합격자 -

-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중(북경중의대 한의학과)

한국 총장 헤인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藥大學 02) 511-1080, 2026